

■ 화제의 뉴스 ■

“자산운용사, 수백억 물어내라” 대법원, 부동산펀드 부실판매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은 최근 원고인 지역 새마을금고 98개와 HK저축은행, 피고인 KB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부동산펀드를 판매한 KB자산운용의 책임을 전체 손실액의 20~30% 까지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결론짓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KB자산운용의 손해배상 규모가 2심 재판에서 정한 160억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마을금고와 HK저축은행은 KB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인 KB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 6호(사모)와 7호(공모)에 679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KB자산운용이 펀드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으며 2008년 11월 펀드 만기일까지 원금의 상당 부분과 수익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에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에서 KB자산운용에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 743억 원의 22% 수준인 총 16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KB자산운용의 배상액이 전체 손실액의 50% 이상으로 2심 판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펀드 부실판매 소송이 확대될 수 있어 소송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명백한 부실판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 \[단독\] “자산운용사, 수백억 물어내라” 대법원, 부동산펀드 부실판매 소송 파기환송 \(2015. 10. 1.\)](#)